DAEWOO E&C

www.daewooenc.com

대우인 건설인

DAEWOO E&C
MAGAZINE
2020 1 + 2



오사르푸 코델펠린 충동 센트럴파크

11 + 12월호 표지 이벤트 당선작

지난 11 + 12월호 컬러링 이벤트 당선작을 소개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80분이나 단축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용인우회도로가 알록달록 색깔 옷을 입었네요.
지난 한 해 동안 컬러링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스티커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표지 스티커 이벤트

<대우건설인>이 올해부터 새롭게
스티커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동봉된 정대우 스티커를 표지에 자유롭게
붙여서 나만의 표지를 완성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하나

스티커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주세요. 업로드 시
게시물에 꼭 **#대우건설인** 태그를 달아주세요.
그래야 이벤트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둘

스티커 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사보 담당자 앞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 메일 제목을
[사보 표지 스티커 이벤트]로 달아주는 센스!

커뮤니케이션팀 박주형 대리
joohyung.park@daewooenc.com

대우인 건설인

DAEWOO E&C
MAGAZINE
2020 1 + 2


8


16


28


34


44

등록일자 1993년 5월 29일
발행처 (주)대우건설
발행인 겸 편집인 김형
담당자 커뮤니케이션팀 박주형 대리
(사보 편집실)
기획·편집·디자인 (주)안그라픽스 미디어사업부
02 763 2303
사진 황규백, 김진솔
인쇄 금강인쇄

2 **CEO 신년사**
4 **경영진 신년 메세지**
8 **시무식**

10 **SPECIAL**
2020년 대우건설 신입사원
신입사원과 함께하는 연탄나눔
18 **THEME VIEW**
두근두근 다시 시작 2020,
가슴 가득 처음 그 설렘으로
20 **THEME POLL**
나의 초심, 어디 숨었니?
24 **THEME TALK**
너를 다시 불러본다, 설렘
26 **THEME VISION**
드론은 미래를 향한 열정과 설렘을 싣고

28 **현장스타그램**
공원을 품다, 행복을 안다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34 **정대우로드**
1만 7천개의 매력 인도네시아
39 **WORK & LIFE**
여권 없이 떠나는 세계 여행
주말에 뭐하지
취미유발자들

48 **대우건설인 +**
우건회 제2회 한마음축제
정대우 종이인형 만들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

52 **대우건설 뉴스**
2020년 1+2월 대우건설 뉴스
56 **독자의견**
2020년을 새롭게
<대우건설인>을 즐기는 네 가지 방법

우리만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우건설을 위해 애써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작년 우리는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와 매출 하락에 따른 역성장의 우려로 어려운 한 해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리뉴얼한 푸르지오 브랜드를 바탕으로 약 21,000세대 주택 공급을 통해 동종사 대비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으며, 해외에서는 국내 최초 원청사 파트너의 일원으로 나이지리아 LNG 액화 플랜트 공사 수주를 확정하고, 이라크에서는 수의로 총 4건, 약 5,340억 원 규모의 수주고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신사업 부문에서는 AMC 설립의 본인가 승인을 득하고, 베트남 개발사업에서도 매출 및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최선을 다한 결과 지난해 초 계획한 대부분의 경영지표를 달성하며 대우건설의 재도약을 위한 기초를 다져 놓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올해 경영환경도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규제 정책 등으로 건설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도 계속되는 무역 갈등 및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세 지속 등으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저성장 국면 속에서도 우리는 외부 환경에 좌지우지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여 흔들림 없이 우리의 길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의 3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역량 강화를 통한 질적 성장입니다.
양질의 수주는 저성장 시대에서 우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단, 양적 성장만을 위한 무분별한 수주는 철저히 배제하고, 기구축된 CRM 시스템 등을 활용한 보다 체계적인 마케팅 역량 강화로 대우건설이 재도약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 전반에 걸친 세심한 관리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손실로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축적해온 Best Practice와 Lessons Learned 등 과거의 경험은 역량 개선을 위한 새로운 교과서로 적극 활용해주시고, 철저한 R&O 관리로 프로젝트 운영 구조를 개선하여 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별 역량 차이가 공사의 성패를 가르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역량 개발을 위해 향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각 부문별 역량 강화가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재무 건전성 개선을 견인하여 우리 대우건설이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입니다.
작년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여러 시도를 실현하는 노력의 과정이었다면, 올해는 그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플랜트/토목사업본부에서는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LNG, 신재생에너지 등의 추가 공종 발굴 및 역량 확보를 위해 힘써 주시고, 주택건축사업본부에서는 시공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밸류체인 확대를 위해 더욱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사업본부는 사업 다각화를 통한 다양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 개발사업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AMC를 활용한 투자개발 및 자산 운용사로서의 사업 확대 등도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 운영 체계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 효율화입니다.
역량 강화를 통한 질적 성장 및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는 그에 맞는 경영 인프라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에 앞으로는 공사 수행에 있어 구조적인 제약이나 불합리성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수동적/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시스템과 절차를 통합, 공유하는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우건설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구축된 CRM, BLS 시스템과 같이 그동안 산재되어있던 정보를 DB화하여 지속 활용해 나간다면 향후 이것은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내외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 BIM, 프리콘 등 DSC(Daewoo Smart Construction)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 시스템과 더불어 회사에서는 성과 보상 제도 등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여 성과가 곧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일궈낸 우리의 명성이 한순간의 실수로 사라지지 않도록 회사 경영의 기본이자, 최우선의 가치인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안전과 품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통해 경영 수치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 가치적 성과까지도 모두 달성하여 대우건설이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대우건설만의 저력과 잠재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외부에서도 쉽게 넘보지 못하는 강하고 존경받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시작해봅시다.

다시 한번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일
㈜ 대우건설
사장 김 형

HAPPY NEW YEAR



모두의 슬기와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CFO 정항기 부사장

관리지원부문에서는 공사현장 및 영업 일선에서 겪는 어려운 환경과 이슈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미비한 부분에는 프로세스를 조속히 도입해 관리를 고도화하고, 재무역량을 강화하여 회사의 재무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역량고도화 및 기업가치 제고활동 성과들을 기반으로 당면 과제들을 슬기롭게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갑시다. 이를 통해 내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Turn Around를 이뤄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맞춤형 경영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사관리지원본부 조인환 전무

인사관리지원본부는 직무중심, 전략적 인력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건설과 IT융합을 통한 현장경영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소통환경 조성과 업무지원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해 내부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과 브랜드 마케팅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여 사업본부의 수주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인사관리지원본부의 모습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가치를 더욱 빛낼 한 해입니다

주택건축사업본부 백정완 전무

지난해 저희 본부 실적에 기여해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저성장 추세, 소비심리 위축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강화 등으로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경영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주택건축사업본부는 기초 및 핵심 역량 강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상품과 첨단 건설기술을 바탕으로 주택건축사업분야의 강자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NEW HOPE



신성장의 기틀을 다잡겠습니다

신사업본부 김창환 전무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의 순탄치 않은 외부 경영환경 속에서 최근 건설사의 경영 화두로 미래 대응, 변화와 혁신,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신사업 본부는 BTS(Build Together Startups)를 시작으로 신사업 및 신시장 발굴과 개발사업 스펙트럼 확대로 대표되는 신성장기반 구축은 물론, 베트남 THT사업 수익성 제고 등 내실 강화에도 주력하여 회사의 경영성과 제고 및 2025년 중장기 비전 달성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Turn Around의 원년을 만들기 위하여

토목사업본부 김형섭 전무

토목사업본부는 올 한 해를 본부 실적 Turn Around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혹독한 자기반성과 분석을 거쳐 15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해외사업 수행 역량 고도화를 위해 사업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인적 역량을 개선하는 한편, 양질의 수주를 위해 해외 입찰 실행의 적정성과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민자 SOC Seeding PJ 발굴을 통해 본부의 중장기적 성장을 향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목사업본부가 우리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장기 재무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재무관리본부 최종일 전무

2020년은 도전과 열정의 대우건설이 Global Top 20로 나아가는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국내외 경영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본부와 함께 전사 비전을 이끌어가는 재무관리본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달성, 순차입금 증가 제로 달성을 위해 전사의 지혜를 모으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사업본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관리본부가 앞장서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과제를 먼저 해결해 기업가치 제고를 이루어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대우건설을 물려주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2020



미래를 위한 전사 전략 방향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전략본부 임판섭 전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외 건설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미래전략본부는 회사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우건설의 비전과 핵심전략에 따른 전사 성장 전략과 방향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이 이를 실행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체계를 전면 재구축하여 중장기 목표인 'Global TOP 20'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조달역량의 혁신을 향해

조달본부 이호진 상무

조달본부는 투명한 조달 시스템의 검증, 보완을 통한 회사이익 기여를 경영방침으로 삼아, 계약관리 강화, 시스템 고도화, 내부역량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내부 및 외부의 고객에게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조달제도의 검증과 보완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현장의 원가, 품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기에 조달지원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과 상생경영을 이루어 나아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Build Together!



BUILD TOGETHER WITH COMPLIANCE!

감사실 오광석 상무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새해를 시작합시다. 2020년 감사실은 적발, 지적 위주의 감사 관행에서 탈피해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비효율과 장애를 제거해 임직원 여러분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와 비리로부터 안전한 대우건설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홍보 및 점검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2020년 한 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흔들림 없는, 든든한 경영지원으로

경영지원실 임기영 상무

작년은 어려운 경영환경과 역성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로 녹록치 않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국내외 건설환경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고 개선한다면 잘 쌓아놓은 기초 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지원실에서는 수행 및 수주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에 힘써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대우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OPE

NEW



세계로 뻗는 플랜트사업에 앞장서겠습니다

플랜트사업본부 김광호 상무

플랜트사업본부는 LNG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NLNG Train 7 FEED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제한된 업체만 가능하다는 액화 플랜트 EPC 원청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LNG 사업 또한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 임직원 여러분의 전사적 도움과 각고의 결실입니다. 2020년 올 한 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철저한 사업관리로 회사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플랜트사업본부가 해내겠습니다.



안전과 품질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품질안전실 김성환 상무

2020년 품질안전실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전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안전 및 품질의 관리시스템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우리의 고유안전문화인 CLEAR를 전 현장에 확대적용하고, 현장 이행력 강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품질 또한, 업무프로세스 체계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업무 수행능력을 높이고, 업무프로세스 활용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본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반영하는 것은 물론 안전과 품질이 가장 우선시 되는 풍토 조성의 해를 만들겠습니다.



지속성장에 앞서는 마케팅 컨트롤 타워

글로벌마케팅실 양성민 상무

글로벌마케팅실은 2020년 전사 마케팅 Control Tower 역할 수행 강화를 위해 국내 및 해외 마케팅 통합 조직으로 새로이 출범했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사업환경 속에서 경쟁 우위의 사업 기회 발굴 및 대응에 나서 마케팅 네트워크 및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대우건설 수주의 첨병 역할과 각 사업본부별 수행 현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지속 성장에 앞장서는 글로벌마케팅실이 되겠습니다. 2020년 새해,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큰 꿈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역량집중, 소통강화, 위기돌파!

기술연구원 장승규 상무

기술변화의 속도가 거의 모든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에 보조를 맞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기술연구원은 시장의 변화와 요구에 앞서 디지털 건설기술 개발을 통해 디지털 및 기술 Control Tower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유관 본부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난관과 위기라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변화 시켜 회사의 새로운 도약에 앞장서겠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복 나누러 왔다 전해라









2020년의 새 아침, 더욱 힘찬 한 해를 열기 위한 시무식 행사가 진행됐다. 김형 사장을 비롯한 전 집행임원들이 출근길 임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떡이 들어 있는 복주머니를 전하며 새 기운을 불어넣은 것이다. 이른 시간과 추운 날씨로 많은 직원들의 손이 차가웠지만, 맞닿는 온기와 오가는 덕담에 을지로 사옥 로비 분위기가 금세 훈훈해졌다.
이 이색 시무식은 형식적인 행사를 대신해 전 임직원과 보다 친근하게 소통하며 함께 사기를 진작하자는 의미로 지난해부터 실시해왔다. 올해는 을지로 신사옥에서 실시한 첫 출근인사라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주고받은 인사와 응원으로 한번 더 웃을 수 있는, 더욱 따스한 새해 첫 출근길이 되었기를 바란다.



오늘부터 나도 출근! 대우건설 신입사원

임직원들의 마음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줄 대우건설의 새 얼굴,
130명의 20사번 신입사원들을 소개한다.

서재원–토목 | 박대석–기계 | 서수민–기계 | 김다솔–설계 | 독재윤–재무 | 정해인–환경

유영현–건축 | 송창훈–기계 | 박써리–재무 | 이준형–안전 | 유재혁–토목 | 홍세미–재무

1조

이정훈–토목 | 이건행–건축 | 김민석–환경 | 신범희–경영지원 | 박성민–기계

이우석–토목 | 백써리–안전 | 홍석우–건축 | 김동윤–경영지원 | 이원택–사원 | 김민석–환경

2조

이지윤–건축 | 김주성–조경 | 김기범–건축 | 김기훈–전기

이세원–사원 | 완형한–토목 | 정석현–기계 | 서주원–건축 | 정성호–건축 | 이지윤–건축

3조

박병용–경영지원 | 김진석–토목 | 이승준–건축 | 최태환–사원 | 정인용–토목 | 이아미–재무

고소윤–건축 | 이성규–조경 | 최원기–건축 | 박지훈–안전 | 최익선–기계

4조



이영경ㅡ재무 권오진ㅡ토목 박준우ㅡ사업 강영웅ㅡ건축 김지만ㅡ현장관리 엄홍용ㅡ건축 심영빈ㅡ기계 김창완ㅡ건축 여의주ㅡ안전 석민정ㅡ건축 김병욱ㅡ전기

5조



신화정ㅡ건축 황상욱ㅡ토목 박정은ㅡ건축 유종현ㅡ안전 김기종ㅡ사업 이호ㅡ건축 안효식ㅡ건축 김용준ㅡ현장관리 이상무ㅡ전기 강해연ㅡ재무 이명수ㅡ기계

6조



김희찬ㅡ토목 임두이ㅡ안전 전민제ㅡ경영지원 박민혁ㅡ건축 이세준ㅡ재무 박준영ㅡ기계 곽유섭ㅡ기계 조장경ㅡ건축 조가은ㅡ경영지원 김민혁ㅡ건축 전현우ㅡ전기

7조



정재근ㅡ기계 김도영ㅡ토목 황세영ㅡ재무 주원석ㅡ현장관리 유란ㅡ안전 김상영ㅡ전기 정진혁ㅡ안전 박광윤ㅡ건축 윤진영ㅡ건축 최형인ㅡ전기 구본길ㅡ건축

8조



임상언—건축 김상희—안전 양승민—건축 한지석—건축 조동욱—기계 서원빈—전기 최백희—재무 이재연—전기 김명환—토목 한승민—안전 채현—현장관리

9조



전창민—건축 허재영—현장관리 최윤혁—재무 김영직—건축 한예림—토목 윤은환—안전 정현수—건축 조영진—안전 김재형—토목 김대성—전기 조상운—기계

10조



임준형—건축 김도현—현장관리 지정빈—기계 이경주—경영지원 임병철—안전 김유현—경영지원 이강산—건축 김주선—사업 문선주—기계 박도현—건축 임성빈—전기

11조



정현재—건축 김영수—건축 이재진—전기 정은동—안전 김태관—건축 이성민—기계 김동혁—건축 송세근—재무 김준택—안전 김대곤—토목

12조



신입사원과 함께하는 연탄 나눔

대우건설은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7년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재능기부 '희망의 집 고치기' 활동을 필두로, 가족과 함께하는 '희망상자 나눔' 활동, 지역단체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중이다. 이러한 회사의 노력에 일조하기 위해 이번엔 신입사원들이 발 벗고 나섰다.









2020년, 대우건설인으로서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130명의 신입사원들. 그들이 매서운 추위를 뚫고 광명시 소하동에 모였다.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18가구에 5,400장의 연탄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퇴직임원모임인 우건회와 임직원들의 '동전모아 사랑 실천하기' 기금도 이번 뜻깊은 행사에 함께했다. 조끼와 앞치마, 장갑과 열정으로 무장한 신입사원들은 조를 나누어 연탄을 날랐다. 추운 날씨에도 어느새 몸에 땀이 나기 시작했고, 마음도 점점 훈훈해졌다.
"봉사활동에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어요. 취업 준비에 전념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그동안 주변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이웃분들에게 따뜻함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동기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서니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보람 있고 뿌듯하네요."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며 봉사활동을 마친 신입사원들.
연탄과 함께 실어 나른 따스한 마음만큼, 같은 마음으로 쌓아낸 동기애만큼 한 뼘 더 성장한 대우건설인이 되었기를 바라본다.

"동기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서니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보람 있고 뿌듯하네요."







20 THEME POLL — 나의 초심, 어디숨었니?

24 THEME TALK — 너를 다시 불러본다, 설렘

26 THEME VISION — 드론은 미래를 향한 열정과 설렘을 싣고

다시 시작, 2020

가슴 가득 처음 그 설렘으로

최근 여러분이 가장 설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설렘과 기대는 보통 기존과 무언가 다를 때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처음 해보는 것은 줄어들고, 쉽게
주변 상황에 무뎌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은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분명 존재합니다.
첫 출근, 첫 업무, 첫 부서, 첫 현장. 수많은 단어 앞에 '처음'이
함께했던 때의 그 마음입니다. 물론 처음 품은 뜻이라고 해서
전부 초심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초심에는 '시류에 물들지
않은 곧은 마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스승이라 불리는 스즈키
선사는 '선심초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마음 즉, 단순하고 순수하여 편견 없는
마음을 선심(禪心)이라 하고, 선심의 중요성을 아는 자만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 선심을
실행하는 것 만이 초심이라 정의합니다.
나의 가능성에 거는 기대, 주어진 일에 대한 진지한 탐구야말로
무한한 힘을 가진 초심입니다.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숙련된 사람의 마음에는 아주 조금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합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많은 것을 시작할 때입니다.

나의 초심,
어디 숨었니?

**가만히 떠올려보자. 합격 소식을 들었던 때의 기쁨,
첫 명함과 함께 손에 쥐었던 다짐, 첫 업무를 잘해보겠다는 열의.
대우건설인 100명에게 '처음'에 대해 물었다.
결과를 통해 그때 그 시절의 우리를 만나본다.**



**설렘 가득,
첫 출근**
50%



**안절부절,
첫 보고**
16%



**심장이 쿵,
첫 실수**
17%



**오매불망,
첫 월급**
15%

신입사원 시절, 나의 심장을 가장 두근거리게 만든 일은?

신입사원에게 가장 큰 사건은 뭐니 뭐니 해도 나의 '첫 출근'이다. '첫 출근 준비물', '첫 출근 인사',
'첫 출근 복장' 등 따라붙는 연관검색어만 봐도 신입사원들의 긴장과 걱정을 엿볼 수 있다.
출근 이후 이어지는 첫 보고와 첫 실수, 첫 월급은 물론 신입사원 연수 중의 살 떨리는 극기훈련, 가까운
선배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을 때의 초조함도 신입사원들의 가슴을 들었다 놓은 일이다.

입사 초기, 나의 행동지표로 삼았던 선배의 모습은?

각인효과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알에서 막 부화한 새들이 처음 본 대상을 평생
부모라 여기고 따라다니는 것처럼 말이다. 신입사원 시절 보고 들은 것은 이들의 행동지표가 된다.
주변 임직원이라면 조금 더 신중히 행동하고 말할 책임이 있겠다. 호시탐탐 주변을
관찰하는 신입사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단연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능력만렙형' 선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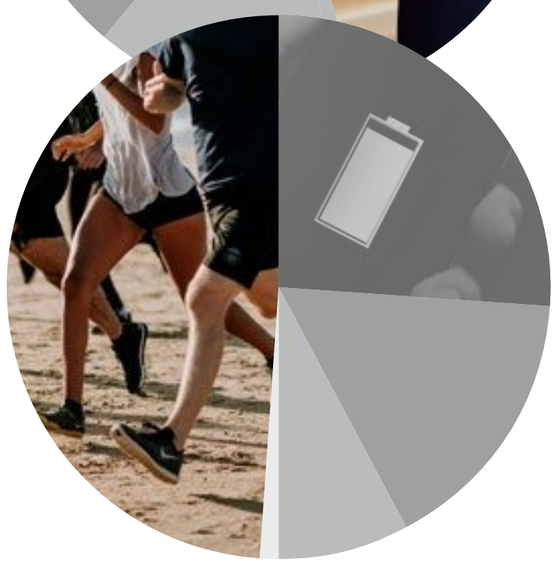
**현장과 사무실을 두루
섭렵한 경험부자형**
21%

**후배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다정다감형**
18%

**리더미 뿜뿜
카리스마형**
15%



**무엇이든 척척
능력만렙형**
46%



**장거리도
두렵지 않아,
50~80%**
49%

**오늘도 '만땅'이요,
80% 이상**
26%

**가까운 주유소를 찾아
주세요, 20~50%**
16%

**즉시 점검 요망,
0~20%**
8%

지금 나에게 남은 '첫 마음'의 주유량은?

직장인 대상의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가 직장생활 권태기를 겪은 적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생활 권태기는 오히려 1~3년 차에 최고조를 이른다고 한다. 현실이 기대와 다르거나,
반복되는 업무에 피로감을 느끼면 의욕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직장생활의 핵심은 페이스
조절과 에너지 분배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초심이 변했다’고 느껴지는 동료의 행동은?

생활이 익숙해지면 그만큼 편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 업무 태도와 일 처리 방식이 동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맡은 일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거나, 쉬운 방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 남에게 일을 미루려는 태도, 잦은 지각 등은 ‘초심이 변했다’고 느끼게 한다. ‘눈에 뻔히 보이는 핑계를 댈 때’, ‘상사의 비위를 맞추려 눈치만 볼 때’ 등이 기타 의견으로 꼽혔다.

맡은 일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모습
32%

꼼수 찾아 삼만리, 일을 쉽게만 처리하려는 모습
30%

남에게 일을 미루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모습
24%

잦은 지각, 찌푸린 표정 등 좋지 않은 업무 태도
12%



함께하는 동료와 업무 합이 잘 맞을 때
26%

흥미, 적성에 맞는 업무를 맡았을 때
17%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14%

성과 및 보상으로 성취감을 느낄 때
43%

직장에서 설렘과 두근거림을 느끼는 순간은?

니틴 노리아 하버드대 교수는 성취, 결속, 이해, 방어의 4가지 욕구가 인간 행동의 근본적 원인이자, 조직 구성원에게 동기부여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말한다. 성과와 보상을 확실하게 연결하고, 동료 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하여 팀워크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업무에 의미를 부여해 기여 의식을 고취하며, 공정한 프로세스를 통해 각자의 소유물이나 성과를 보장하려는 태도다.

일상 속에서 설렘을 찾기 위한 나만의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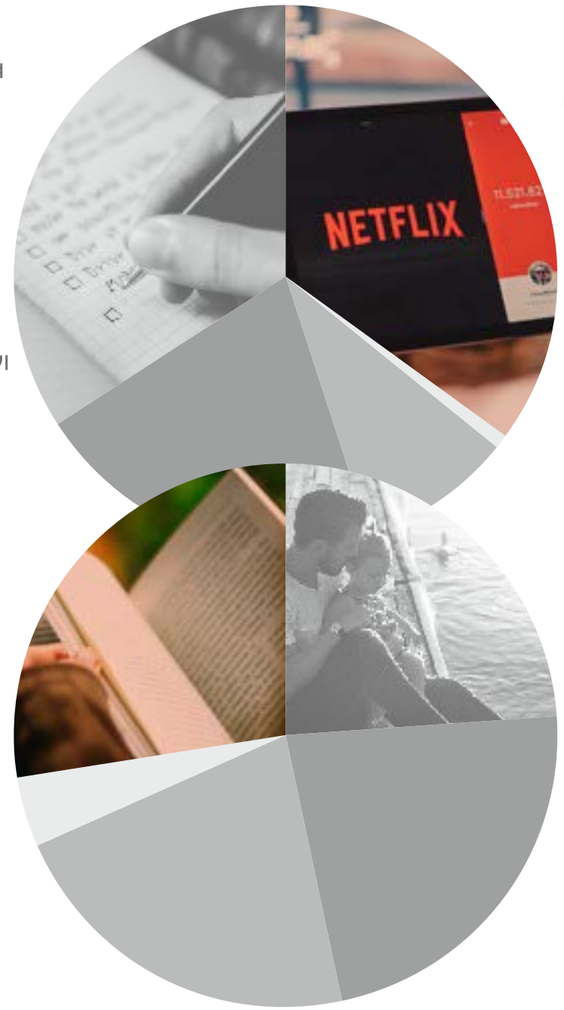
일이 개인의 발전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느낄 경우 쉽게 지치거나 싫증 나기 마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위한’ 행위를 늘리는 것을 추천한다. 일주일에 한 번쯤 점심시간을 빌려 회사 주변을 산책하거나, 책상에 소중한 사람들의 사진을 놓는 등 소소할수록 부담이 적고 실천이 쉽다. ‘이번 달에 절대 하지 않을 한 가지 행동’을 정해 일상에 제한을 두는 것도 오히려 활력을 높일 수 있다.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며 발전의식 느끼기
34%

취미활동 등 업무 이외의 시간 보내기
35%

해보지 않은 업무나 역할에 도전하기
21%

마음 맞는 동료와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기
9%



어학, 독서 등의 자기개발 및 취미활동
28%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24%

꾸준한 운동 및 다이어트
23%

맡은 업무에서 더 나은 성과 내기
22%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다짐해보는 나의 2020년 목표는?

한해의 버킷리스트를 적어보고 단꿈에 빠져보는 것은 1, 2월 연초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작년에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는 목표 설정도 좋지만, 사회 초년 시절 꿈꿨던 목표와 이상향을 한번쯤 떠올려보면 어떨까. 그때의 설렘, 열정, 다짐을 더듬어 보면서 말이다.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에 따라 같은 일상도 다르게 보일 것이다.

너를 다시 불러본다, **설렘**

동화 속 헨젤과 그레텔은 미지의 숲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가는 길마다 하얀 조약돌을 떨어뜨려 두었다.
과거에 남겨둔 '초심'이라는 조약돌을 잘 줍기만 해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

이십 대의 나와 지금의 내가 만나

우리가 회사에 던져둔 첫 번째 조약돌은 바로, 입사를 희망하며 썼던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일 것이다.
부끄러움은 잠깐이다. 내가 이 회사에 왜 오고 싶었고, 회사를 통해 어떤 발전을 이루고 싶었으며, 어떤 미래를 꿈꾸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된다.
과거 진행했던 일들의 업무일지나 보고서, 기획안을 다시 보는 것도 좋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힘들어했던 기억과 보람은 물론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떠올려볼 기회다.
신입사원 시절의 나를 떠올려 보았다면, 회사의 조직문화와 부서 사람들, 담당 업무를 거치며 변화한 **현재의 내 모습도 일기를 통해 확인해보자.** 변하지 않는 나의 기질과 특성 그리고 일을 통해 내가 얻은 능력을 일기장에 꼼꼼히 적어본다.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이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을 내 성격과 능력의 전부라 쉽게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 나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말고, 내가 한 선택을 통해 마음속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자아들을 들여다보자.

슬럼프를 극복하는 긍정의 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혹은 잘하고 있는지 등의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에는 자연스레 부정적인 마음이 끼어든다. 슬럼프에 빠지는 것이다. 슬럼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지레짐작하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게 만든다.
할리우드 영화감독인 세스 고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종 **자기 자신에게 팬레터를 쓴다.** 조금 엉뚱하지만 간편한 이 방법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더욱 긍정적으로 느끼게 한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실패와 변화를 보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 성공과 완벽에 집착할수록 일에 대한 즐거움은 반감되기 때문이다. 특히 **완벽주의자가 되려는 욕심은 일찌감치 내려놓자.** 오래 일하고 싶다면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하기보다는 적절한 기준선을 정하고 그 선 안에서만 일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다 끝날 때까지 퇴근하지 않겠어'라는 결의는 자주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무턱대고 많은 일을 떠맡거나, 내 능력 이상의 퀄리티를 내보려고 스스로 괴롭히는 태도는 직장생활의 '설렘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동료, 우리를 바꾸어낼 가장 확실한 방법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겐이치는 책 <난문쾌답>에서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중 세 번째 방법,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찾는다면 회사가 적격이다.
친한 몇몇 동료와 마음 깊이 교류하는 것도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이지만, 이미 패턴화된 관계를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눈을 맞추어보는 것은 어떨까. 업무를 진행하며 새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어제와는 다른 작은 변화가 된다. **사내 동호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평소 부서가 달라 친해질 기회가 없었던 동료들과 소통할 빠른 기회다.
직장 내 멘토를 만드는 것도 좋다.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 그를 관찰하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주변 사람의 좋은 면면을 보고 배울 점을 찾는다면 동료들과의 관계은도 또한 높일 수 있다.

BONUS TIP
일에 설렘을 더하는 10가지 제안법

1. 일에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본다.
2. 필요에 따라 맡은 업무의 범위나 종류를 변경하며 일한다.
3. 내 능력이나 흥미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지 찾아본다.
4. 일이 내게 어떤 개인적인 행복을 주는지 생각해본다.
5. 일이 내 삶의 목적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6. 내가 맡은 업무가 조직의 성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되새긴다.
7. 내 일이 사회와 사람에 기여하는 바를 생각한다.
8. 직장 동료들의 장점을 찾으려 노력한다.
9. 업무와 관련된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0. 적극적으로 후배나 신입직원의 멘토가 되어주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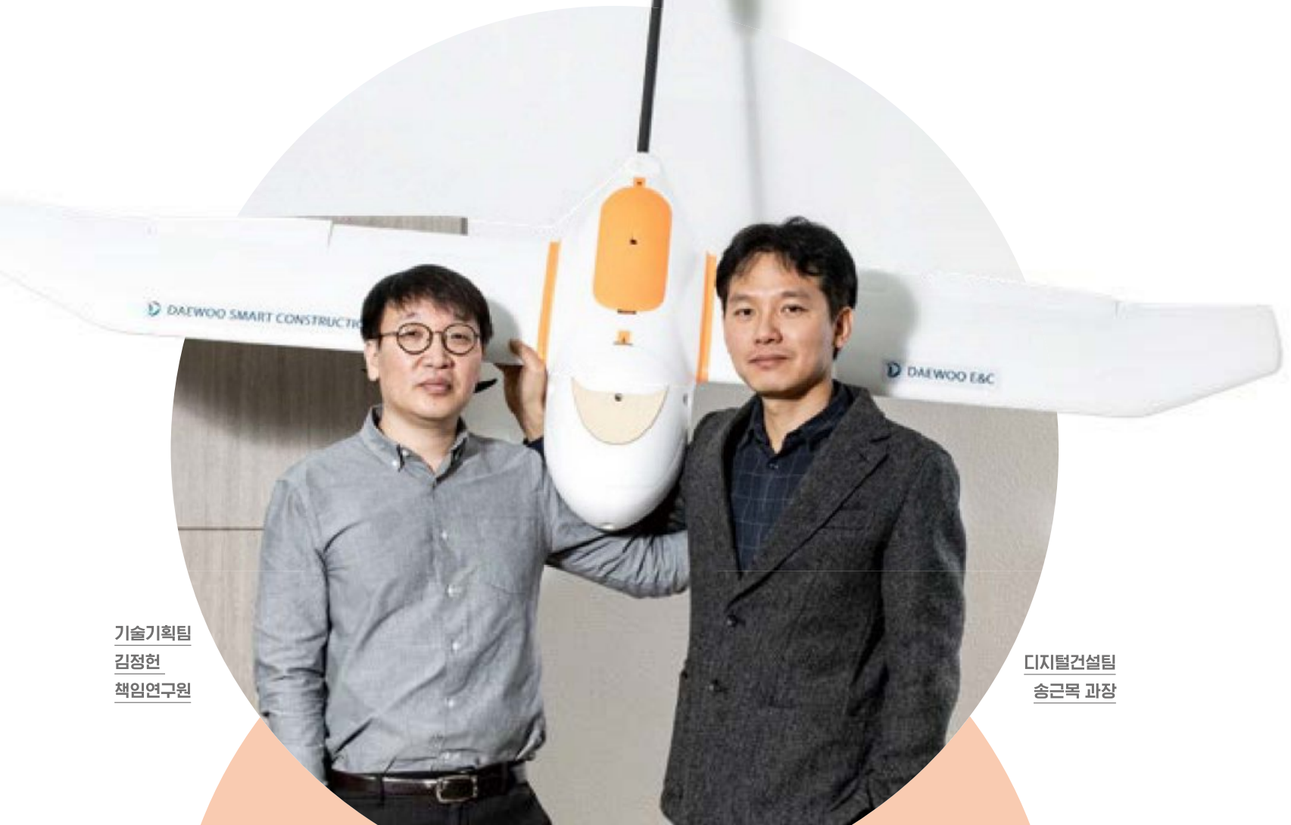
드론은 미래를 향한 **열정과 설렘을 싣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건설업의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는 대우건설의 기술연구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기술연구원 직원들을 만나 그들의 힘찬 날갯짓을 들여다본다.
기술기획팀 김정헌 책임연구원, 디지털건설팀과 나눈 일문일답.**

많은 기업들이 새해 키워드로 '스마트화'를 꼽았다. 대우건설 역시 마찬가지다. 기술연구원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디지털 분야의 발전 속도는 나날이 빨라진다. 약 3개월마다 새로운 기술이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어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특히 건설업 현장은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맞는 체감도 높은 기술의 파일럿 버전을 빠르게 적용한 뒤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러 건설사에서 집중하고 있는 '디지털 컨스트럭션'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기술이나 기기를 활용해 건설 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각각의 데이터를 여러 부분에서 도출한 뒤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방위 데이터를 한 번에 그리고 더욱 디테일하게 수집 가능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 디바이스가 드론과 IoT다. 특히 드론은 인간의 신체적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사진과 동영상 등 파악과 분석에 용이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이 데이터를 모아 연결하고 해석해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한 뒤, 3D 모델링과 토공량 관리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컨스트럭션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 확보다.

드론으로 인해 현장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현장 간, 부서 간,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건설 현장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여러 팀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상상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너무 많은 수고가 들었다. 설명하고, 전달하고, 회의하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기 위해 숫자를 비교하며 그래프를 그리는 데 힘을 빼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확보한 데이터를 통해 3D 모델링하여 직관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도출한다. 공사 전에 설계물량을 더욱 정확히 측량할 수 있으니 공사기간과 원가를 크게 줄여낸 것도 큰 성과다.



기술기획팀
김정헌
책임연구원

디지털건설팀
송근목 과장

대우건설은 2016년부터 드론팀을 신설하여 독보적인 성과를 내오고 있는데. 대우건설에 드론팀이 만들어진 것은 송근목 과장의 역할이 컸다. 지난 2015년, 취미로 드론을 날려오던 송 과장이 국제 드론 레이싱에서 챔피언을 차지하며 드론과의 깊은 인연을 알리게 된 것이다. 송 과장이 기존에 하던 업무와는 관련이 ㅁ멀어 주변의 놀라움을 사기도 했다. 그때 회사에서 제안을 해왔다. '업무로서 지원해 줄 테니 드론 레이싱 실력과 노하우를 회사 일에 적용해보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송근목 과장은 취미가 업무로 이어진 상황이다. 부담감은 없었는지. 초반에는 혼자 드론을 메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측량했다. 전사적인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니 비교적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다. 토목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현장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대략 알고 있다는 점도 도움이 됐다. 드론 측량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느낀 직원들이 현장을 옮겨 그 방법을 공유하고, 그 데이터를 본 다른 현장에서 측량을 요청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지금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등 해외 현장까지 지원에 나선다. 점점 적용 방법과 프로젝트 사례가 다양해지며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쌓였다.

대우건설의 '대우드론관제시스템'도 주목받은 드론 측량 사례다. 대우드론관제시스템 'DW-CDS'는 전용 어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램을 통해 관제센터에서 종합관제와 드론원격제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대우건설에서 자체 개발한 영상관제 플랫폼 CDS.Live로 영상을 전송하면 최대 256개의 현장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다. 촬영한 영상은 즉시 전송하여 권한이 있는 임직원이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하다. 지금은 대우건설 내의 업무에만 사용하지만, 차차 건설산업 이외 인명수색, 교통관제 등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디지털 컨스트럭션' 및 '드론'을 통해 앞으로 더욱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드론은 그 자체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성장의 동력이 되는 엔진 중 하나다. 유용한 자료를 더욱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 직원들을 위해 창출하는 서비스인 것이다. 이번에 구축한 DW-CDS는 단순 모니터링에서 그치지 않고,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비, 자재, 시설물 등에 대한 변동 사항을 자동 분석하여 보고서까지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대우건설만의 직접 수행 능력과 다양한 사례 경험력, 자체적인 분석력이 쌓이고 쌓여 더 많은 성과를 내리라 기대한다. 우리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고자 더욱 노력하겠다.



디지털건설팀
이석형 대리

디지털건설팀
이자은 사원

디지털건설팀
최종필 대리

공원을 품다,
행복을 안다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부천 중동신도시 내 최대 공원인
부천중앙공원을 품은 초고층 아파트가
있다. 일대의 랜드마크이자, 최근 대세로
떠오른 이른바 '공품아(공원을 품은 아파트)'의
새로운 룰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 현장을 찾았다.

165 m
최고 높이

15,474 m²
대지 면적

지상 49 층
지하 4 층
동 6 개

40 month
공사 기간
16.10.01 -20.01.31

183,737 m²
연면적



아파트에 있으면 마치 중앙공원의 일부에 속한 것처럼 느껴진다. 중앙공원과 연결되는 공개공지가 1층에 넓게 펼쳐지고 단계적으로 3층까지 녹지공간을 확보해 위에서 보았을 때 아파트 대지 전체가 공원처럼 보이도록 했다.

‘공풂아’의 대표 주자,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과거에 역세권, 학세권 등 뛰어난 입지와 교통 환경을 갖춘 아파트가 크게 주목받았다면, 최근에는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가 높은 청약경쟁률과 프리미엄을 기록하며 급부상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2016년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 미래주택시장 트렌드’에 따르면, 자연을 즐기는 동시에 주택 내 첨단기술을 통한 주거 가치 향상이 중요 트렌드로 손꼽히고 있다. 주택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도 교통 24%, 교육 11%를 제치고 ‘쾌적성’이 35%를 기록하고 있다. 자연 친화적 아파트 중에서도 ‘공풂아’가 인기를 끄는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워라밸 열풍을 꼽을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늘어난 여가 시간을 자연 속에 즐기고 싶어 하는 것. 도심 속 자연이 허락하는 휴식과 여유를 가까이에서 자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높은 인기의 이유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도 한몫했다. 도심 공원의 유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40%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니 공원을 품은 아파트에 인기가 쏠리는 이유는 명백하다.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역시 부천 중동신도시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천중앙공원을 바로 앞에 둔 입지를 자랑하고 있어 2016년 착공 전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다.

또한 공원뿐 아니라 인근에는 부천시청, 순천향대학교병원,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이마트와 홈플러스, 지하철 2개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쾌적한 주거 환경과 함께 역세권, 몰세권, 학세권 등 편리한 인프라 환경까지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그야말로 프리미엄에 프리미엄을 더했다.

이렇듯 모두의 관심 속에서 탄생한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는 주상복합 아파트다. 지하 4층 지상 49층 6개동, 아파트 999세대, 오피스텔 52실 규모다. 49층 초고층 아파트라는 점에서 벌써 부천 중동신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중앙공원을 내다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티 하우스와 스크린 골프장과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와 어린이집 등이 있다.

푸른공원을 아파트로 들이는 현명한 지혜

앞서 살펴봤듯이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의 최대 강점은 부천중앙공원이다. “중앙공원은 숲, 광장, 연못, 잔디밭, 심지어 숲속도서관 등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다양한 풍경을 보느라 지루할 틈이 없죠. 주말이나 연휴에는 다양한 문화행사도 개최되어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는 공원 입지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부터 ‘공원 중심형’을 표방했다.

중앙공원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최대치로 좁히고자 한 것. “중앙공원과 연결되는 공개공지가 1층에 넓게 펼쳐지고 단계적으로 3층까지 녹지공간을 확보해 위에서 보았을 때 아파트 대지 전체가 공원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도심 속 푸른 공원을 아파트로 들이려는 지혜는 각 세대에서도 발현됐다. “전망 확보를 극대화했습니다. 창호 외부에 통상적으로 설치하는 금속 난간대가 아닌 유리 난간대를 설치하여 중앙공원을 바라보는 데 장애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거실 소파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면 공원으로부터 펼쳐지는 풍경이 한 폭 풍경화처럼 깨끗하게 담긴다. “세대 내에서도 다른 아파트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방의 벽면이 일반 타일이 아니라 인조대리석으로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주방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벽타일 줄눈 사이에 기름때가 끼는 등 지저분해지기 쉬운데, 인조대리석을 시공해 좀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안방에 붙박이장이 아니라 드레스룸을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안방과 연결된 베타룸은 드레스룸 또는 서재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커뮤니티 시설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중앙공원을 내다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티 하우스를 필두로 스크린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어린이집, 맘스 카페, 놀이방 등 꼭 필요한 시설들을 알차게 구성했다. 중동 센트럴 푸르지오는 올해 2월 21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자분들의 입장에서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 개선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지하 1층에서 이사를 하기 때문에 동출입문을 패닉도어로 변경했고, 공용 홀의 창호를 고정 창호에서 개폐가 가능한 창호로 변경해 환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부천의 랜드마크가 될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자분들이 이곳에 거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작은 부분부터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착공 이후 주말을 반납하고
최선을 다해 근무해준
우리 직원들, 그리고
협력사분들께 감사합니다.

내 집이라는 생각으로
한 세대 한 세대 정성
들여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입주자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남일 소장

직원 가족의 행복으로부터 입주 가족의 행복으로

이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 현장은 2016년 10월 1일에 착공했다. 이번 공사에서 힘들었던 공정 중의 하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의 골조공사였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중층이 있고, 지상 1층은 높이가 서로 다른 바닥이 약 1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골조공사 계획이 어려웠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또 하나는 전이층이다. 대개 초고층 건물의 경우 상층부와 하층부를 잇고 지탱하는 전이층이 중층부에 있는 반면, 중동센트럴푸르지오 현장은 특별하게도 지상 1층과 2층 사이에 있다. "아파트 2층부터 49층까지를 지탱해줄 전이층이 지상 1층과 2층 사이에 있습니다.

이 전이층의 두께가 3.7m로, 이곳에 쏟아부은 레미콘 수량이 약 21,000m³나 됩니다. 전 동의 기준층 10개층 수량에 해당하죠. 요즘은 레미콘 수급이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제한 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 공사팀, 품질팀, 협력업체, 레미콘 업체, 외부 교통 신호수 담당자 등 관련 인원 모두가 유기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이렇듯 유기적인 소통이 돋보이는 중동센트럴푸르지오 현장은 유독 화기애애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도 유명하다.

"현장 업무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른 아침 출근해 저녁 늦게 들어가면 가족들과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어렵죠. 저희는 매월 생일파티를 꼭 하는데, 이때 전달받은 소정의 선물을 스스로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사진을 찍어 증빙을 꼭 남겨야 해요. 약간의 강제성은 있지만 덕분에 가족과 함께 셀카도 찍고 이야깃거리도 생겨서 더 화목해지는 것 같아요. 가정이 화목해지니 회사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기도 하고요. 생일뿐만 아니라 결혼기념일에는 꽃바구니나 화분을 보내주는데 가족들이 정말 좋아한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은 결국 입주자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현장 직원들의 삶 역시 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고, 그 마음은 현장 곳곳에 스며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행복의 선순환 구조가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를 짓는 진짜 뼈대가 되진 않았을까. 이제 본격적인 입주와 함께 시작될 올해의 봄이 모두의 가정에서 환하게 빛나길 기대해본다.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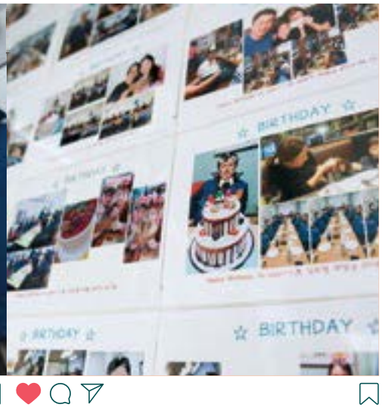
#내집처럼 #최선을_다했어요 #기계팀 #전기팀 #공무팀 #관리팀



#2월에_만나요 #안전/보건팀 #설계팀 #품질관리팀



#손가락으로말해요 #04 #우리는_공사팀



#우리현장자랑 #월간생파 #가족과_인증샷_필수

섬 건너
섬,

1만 7천개의
매력

인도네시아

INDONESIA

**1만 7천 여개의 섬이 있는 인도네시아에는
섬마다 닮은 듯하면서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발리만이 인도양의 보석이 아니듯
자바가 인도네시아의 전부는 아니다.
죽음을 축제처럼 맞이하는, 생동하는 활화산
근처에서도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본다.**

세계에서 섬과 화산이 가장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는 많은 것이 많은 나라다.
가장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화산이 가장 많은 나라, 세계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주변 해양을 포함하면
유럽이 통째로 들어갈 만큼 큰 나라,
세계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제일 많지만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나라, 다양성 속에
하나 됨을 지향하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
자원 부국이자 떠오르는 아시아 경제 대국.
2억 7천만의 인구, 500여 화산,
350여 종족. 17,500개가 넘는 섬 중 꽤
알려진 곳들도 많다. 수마트라, 깔리만딴,
술라웨시, 자바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화산과 지진 활동이 가장 많은 소순다 열도,
말루꾸 제도, 빠뿌아 등이다. 인도네시아가
품은 수많은 여행지 가운데 고르고 고른
데가 자바섬의 브로모(Bromo) 화산과
술라웨시섬의 따나 또라자(Tana Toraja)이다.



지붕이 배 모양으로 치솟은
따나 또라자 전통 가옥,
똥꼬난



마치 '모래바다'처럼
화산재가 가득
내려앉아 있는 모습

BROMO

칼데라 계곡에 흐르던 마술적인 시간, 브로모 화산

인도네시아에는 여전히 연기를 뿜으며 생동하는 활화산이 129개나 된다. 태평양을 둘러싼 '불의 고리(Ring of Fire)' 중에서도 유라시아 판과 인도-호주 판이 만나는 지점에 여러 섬이 놓여 있는 까닭이다. 끊이지 않는 화산 분출은 삶터를 황폐화시키지만, 죽음의 화산재가 대지를 비옥하게 살찌우고 놀라운 자연경관은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 인도네시아 여러 화산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 브로모 화산이다.

전조등 빛기둥이 어둠 속에서 서로 얽히며 번쩍거린다. 미지의 자력에 이끌린 듯 지프들이 대열을 지어 오르는 곳은 산허리에 마련된 전망대다. 그곳에 서면 제일 큰 형인 스메루(Semeru), 주름치마를 늘어뜨린 듯한 바똑(Batok), 여전히 활동이 왕성한 막내 브로모(Bromo) 즉, 화산 봉우리 삼 남매가 멀리서 방문객을 맞이한다.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해돋이를 기다리는 명소이기도 하다. 지상 마을의 미약한 불빛이 어른거리고 화산 연기가 구름과 한 데 뒤섞이는데, 첫 새벽 여명이 안개 물결이 어우러져 칼데라 계곡을 바다처럼 채운다.

장엄한 풍경 앞에서 넋을 잃고 셔터를 눌러대다 안개구름 위에서 내려와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본다. 거대한 칼데라 평원 한가운데 원뿔 모양 봉우리가 솟아 뜨거운 불기운을 토해낸다. 막 떠오른 태양 빛을 역광으로 받아, 말 탄 사람들이 환영처럼 떠돌며 '모래의 바다'에 음영을 드리운다.

이제 253개 계단을 하나씩 밟으며 불구멍 테두리에 올라 유황 가스를 내뿜는 분화구 모서리를 위태로이 걷는다. 멀찍이서 조망할 때의 신비와 환상은 물러가고 심연을 굽어보며 아찔한 공포감을 느낀다.

브로모와 스메루 인근의 화산 지대에 기대어 살아가는 떵거르족은 이슬람 세력에 밀려 피신해온 힌두교도들의 후손이다. 산자락 마을에는 이슬람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잔 대신에 힌두 경전 독경 소리가 메아리친다. 주민들은 화산재가 쌓여 잿빛을 띠는 밭을 일구어 채소를 재배하고 부업으로 관광객에게 말을 태워주고 돈을 번다. 안개가 흩어진 분화구 기슭에는 떵거르 사람들이 지었을 힌두 사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TANA TORAJA

새로운 삶을 향한 축제가 열리는 곳, 따나 또라자

인도네시아 중앙부에 위치한 술라웨시 남부 내륙, 따나 또라자. 고유한 또라자만의 문화는 네덜란드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전파되고 점차 외부 문명이 유입되면서 많이 사라졌다. 다만 '알룩 또 돌로'('조상의 길'이라는 뜻)라는 조상 숭배 신앙은 명맥을 유지해온 것 중 하나다. 전통 가옥 똥꼬난(tongkonan) 곳곳에서도 조상 숭배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지역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똥꼬난의 지붕은, 뱃고물 모양으로 휘어지며 치솟은 특이한 형태를 띤다. 그 모양의 이유는 또라자 족 조상이 바다 건너 배를 타고 왔다는 전설에서 찾을 수 있다.

또라자 사람들의 꺼르바우(Kerbau, 물소) 사랑은 한계가 없다. 집 둘레에 물소 그림을 그려 넣거나, 전면을 물소 뿔 혹은 물소 머리 조각으로 장식한다. 또라자 땅에서 물소는 농사일은 하는 가축이 아니다. 제례용으로 쓰인다. 이곳에서 장례는 친족과 마을 주민 공동의 행사이며,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모두의 축복을 기원하는 잔치다. 장례식은 일주일이 넘도록 진행되는데, 1년 이상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혼식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성대하게 진행된다. 춤과 음악이 어우러지고 물소 싸움이 벌어진다. 고인의 후손이나 친지는 물소 한두 마리씩을 제물로 내놓는다. 물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망자의 혼이 물소를 타고 좋은 세상에 건너가 후손을 보살피는 신이 된다고 믿는 까닭이다. 희생된 물소 숫자가 그 집안의 신분과 부를 드러낸다. 부자나 귀족층이 펼치는 의례를 좇을 형편이 못 미치는 사람들은 물소 대신 돼지나 닭을 바친다.

마을 사람들의 성대한 행사가 끝난 후 망자가 향하는 곳은 흙 덮인 묘지가 아니다. 벼랑이나 바위에 구멍을 파서 뫼를 쓰거나 동굴 안에 관을 안치한다. 그리고는 망자를 닮은 실물 크기의 목각 인형 '따우따우'를 절벽에 세워둔다. 특히 높다란 암벽을 선호한다. 그 위치가 높을수록 하늘나라와 가깝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또라자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연장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다. 사는 데보다 죽는 데 더 많은 돈과 정성을 들인다. 살아가며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까닭은 오로지 명예로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소는 농사일을 하는
가축이 아닌 신성한 의미로
여겨진다.

WRITER

김무환
길 위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표정과 삶의 풍경을 작은 카메라로 담아왔다. 사진전 〈길 없는 길〉, 〈파미르 사람들〉을 열었고, 중앙아시아 방랑 여행서 〈파미르 노마드〉와 인도네시아 탐험 여행서 〈발리보다 인도네시아〉를 썼다.



FROM INDONESIA



인도네시아에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TANGGUH EXPANSION PH.1 PJ 현장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저희가 근무 중인 곳의 짧지만 생생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인도네시아 하면 발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뜨거운 태양과 높은 하늘 그리고 멋진 바다가 연상되시죠? 하지만 일 년 내내 더운 날씨와 습도가 계속된다는 게 조금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덕분에 꽤 색다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추운 겨울이지만 여기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잖아요. 지난해는 장대비까지 내려 들려오는 캐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현장 근처는 말 그대로 열대우림이에요. 주변이 밀림 지역이라 악어주의 표지판도 곳곳에 보이고, 숙소 안에 가끔 도마뱀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멧돼지, 뱀, 사슴, 앵무새, 두더지, 가스와리 등 숙소에서 몇 달 동안 만난 동물만 해도 이 정도예요. 특히 저희 현장은 정글을 개척한 지역이라 밤에 개구리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한국과 시간이 같다는 점도 나름의 장점이지만 전화가 불가능한 곳이라, 사무실 주변의 와이파이 이외에는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답니다.
현장 직원들의 가족분들에게 희소식도 전합니다. 운동을 시작한 직원이 많아요. 저희가 있는 지역은 술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데다, 외진 곳이다 보니 퇴근 후에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공기도 맑아 평소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마저 반강제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곳 같네요.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몸이 상한 분들! 저희 현장을 추천합니다.
추신. 인도네시아에서 먹는 나시고랭과 미고랭 등의 면 볶음요리가 일품이에요.
언젠가 한 번쯤 드셔보시길 바라며!







인도네시아 TANGGUH EXPANSION PH.1 PJ 현장

인도네시아 5개의 섬(수마트라섬, 보르네오섬, 자바섬, 술라웨시섬, 뉴기니섬) 중 가장 동쪽 섬인 뉴기니섬. 그곳에서 LNG Plant 3.8MTPA 규모의 Train 1기 공사에 Construction Management 및 Supervision Service를 1년간 제공하는 공사다.
인도네시아 서부 파푸아 지역 Bintuny Bay 내 운영 중인 LNG Plant와 같은 규모의 Train 1기(3.8 MTPA)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Process Train, Utility, Jetty 및 이송관로 등 광범위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진 섬이라 현지에서 작업 인원을 공급하기 유독 어렵고, 모든 인원과 자재를 비행기나 배를 통해 송출입하기 때문에 각 부서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현장이다.
대우건설은 이전 인도네시아 시공 사례를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시공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열대성기후인 인도네시아는 하루에도 수차례 비가 내렸다 그치고는 한다. 휴대용 우산이나 우비가 필수.

세계2위 열대산림자원 보유국으로, 국토의 65%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고 작은 화산도 다양하며, 오지 섬으로 파고들수록 다양한 자연과 새로운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들 대부분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편이다. 한국 드라마와 K-POP를 비롯해 한국 문화 전반에도 관심이 많다.

인도네시아는 시간에 따라 인사가 네 가지로 나뉜다.
대답은 '슬라맛'을 빼고 각각 "빠기/시앙/소레/말람!"이라고 답하면 된다.
아침인사: 슬라맛 빠기(Selamat pagi)
점심인사: 슬라맛 시앙(Selamat siang)
오후인사: 슬라맛 소레(Selamat sore)
저녁/밤인사: 슬라맛 말람(Selamat malam)



WORK & LIFE

여권 없이 떠나는 세계 여행

가족, 연인과 함께 또는 혼자 즐기기에도 좋은 1+2월의 문화생활. 19세기 프랑스로의 예술 기행부터 미국, 이탈리아 현지의 맛을 그대로 살린 맛집 탐방, 레이싱의 매력에 푹 빠져볼 수 있는 취미까지 여권 없이 떠나는 세계 여행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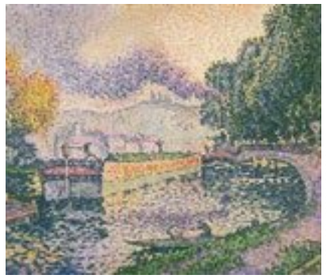
ART TRIP 예술작품으로 떠나는 타임슬립

미리보는 인상주의 전시

전시에서는 클로드 모네의 최고 걸작으로 잘 알려진 수련 연작 중 <수련 연못>이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 작품은 모네가 시력을 잃기 전에 그린 작품으로 수면에 융단처럼 깔린 하얀 빛이 내뿜는 기운이 관람객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잔물결을 일으킨다. 이외에도 폴 고갱의 <우파 우파(불춤)>,폴 세잔의 <강가의 시골 저택>, 알프레드 시슬레의 <생 마메스의 루앙 강에 있는 바지선> 등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 대표작품이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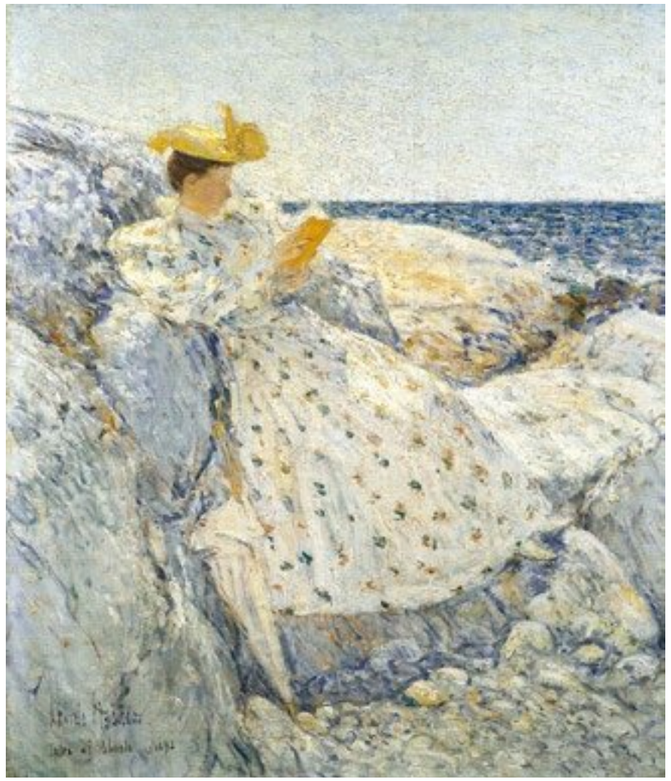
Eugène Boudin <Frigates Approaching Honfleur>, 1864 © The Israel Museum, Jerusalem by Elie Posner



Paul Signac <The Trabboat, Canal in Samois>, 1901 © The Israel Museum Jerusalem



Claude Monet <Pond with Water Lilies>, 1907 © The Israel Museum Jerusal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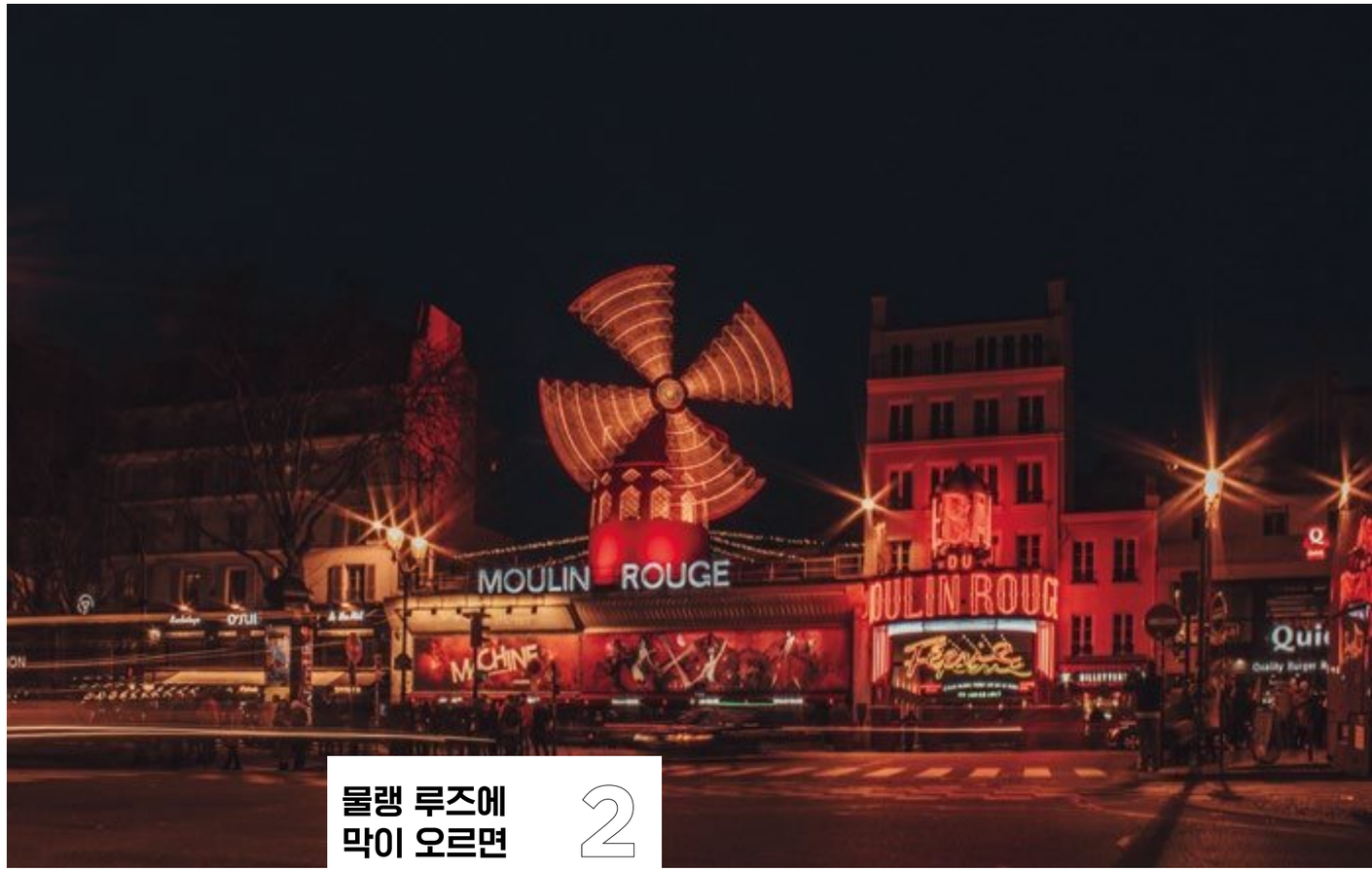
Childe Hassam <Summer Sunlight, 1892> © The Israel Museum, Jerusalem by Avshalom Avital

1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전시 <모네에서 세잔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 | **기간** 4월 19일 일요일까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시대로 불리는 '벨 에포크.' 이 시기에 파리의 상징 에펠탑이 세워지고, 최초의 지하철이 개통됐다.
무엇보다 벨 에포크를 대표하는 예술 분야는 미술이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리던 화가들은 점차 눈앞에 펼쳐진 지금 이 순간을 화폭에 담아내기 위해 고심했고, 인상주의 화가들은 정오에 내리쬐는 빛과 오후 4시의 빛이 다름을 그려냄으로써 시간의 순간들을 포착했다.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빛은 곧 색채였다. 말하자면 빛의 일시적인 효과와 색과 깊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끔 그렸고, 여러 겹의 물감 칠을 통해 형태와 그림자를 나누었다. 초기엔 들판, 하늘 또는 바다 풍경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렸고, 후기 인상주의에 접어들면서 작가마다의 개성이 강해져 클로드 모네와 폴 세잔의 작품에서 절정에 달한다. 인상파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모네는 그림 그릴 주제를 찾아 유럽 각국을 여행했지만, 집에 돌아와 자신의 뒷마당에 있는 수련을 발견하고서야 자신의 그릴 대상은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친다. 그의 작품 초기에는 수련과 연못이 있는 정원 전체의 풍경이 나타나며 작품의 전경에는 연못의 기슭이 보인다. 그러나 이후 모네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인 수련과 그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강의 표면에 부딪히는 빛의 산란마저도 화폭에 담았다. 폴 세잔도 무명의 설움을 이기려고 스위스 등지로 떠나지만 긴 여행에서 돌아오며 자신의 집 근처에 있던 강가의 시골 저택의 모습이 진정 자신이 바라보아야 할 숙고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모네와 세잔 외에도 이 전시에서는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모네에서 세잔까지>전에서 빛의 회화를 감상하며 프랑스 벨 에포크 시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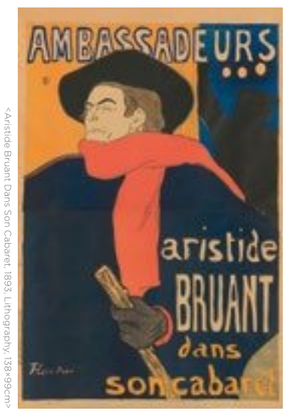
유럽 예술사의 큰 기둥을 담당한 프랑스 명화들을 들여다보며 19세기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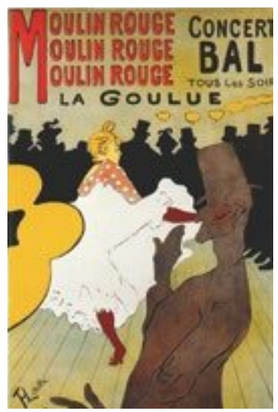
2 물랭 루즈에 막이 오르면

전시 <툴루즈 로트렉>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 **기간** 5월 3일 일요일까지

서울의 겨울을 뒤로하고 19세기 프랑스 파리로 떠나보자. 후기인상주의 화가이자 현대 그래픽 아트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툴루즈 로트렉>의 전시회가 5월 3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현대 포스터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툴루즈 로트렉은 19세기 후반, 예술의 거리 몽마르트와 밤 문화의 상징 물랭 루즈 등을 무대로 파리 보헤미안의 라이프 스타일을 날카롭게 그려낸 프랑스 화가이다. 이번 전시회에 선보이는 포스터, 석판화, 드로잉, 스케치, 일러스트 및 수채화들과 로트렉의 사진 및 영상, 이 시대의 생활용품 등은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을 19세기말 생동감 넘치는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과 물랭 루즈로 안내해 줄 것이다.



<Aristide Bruant Dans Son Cabaret, 1893, Lithography, 138×99cm>



<Moulin Rouge: La Goulue, 1891, Color Lithography, 170×118.7>

고흐 형제가 주고받은 황홀한 편지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장소 빛의 벙커 | **기간** 10월 25일 일요일까지

"그림을 그리는 일은 내게 구원과 같아." 이 말은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이다. 창작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는 고흐가 동생인 테오와 주고받은 900여통의 편지를 토대로 만든 '남성 2인극'이다. 고흐 생전 유일한 후원자이자 지지자가 동생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흐의 삶을 최대한 정확하게 그려내고자 노력한 작품인 셈이다. 이 작품은 고흐의 아틀리에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환상적인 무대영상을 자랑한다. 2D로 그려진 고흐의 그림을 무대 벽과 바닥 등 전체에 쏘아 마치 그림 속에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표현해낸다. 고흐가 붓을 들면 빈 캔버스가 한 폭의 그림으로 바뀌고, 고흐의 그림 <꽃이 핀 아몬드 나무>의 꽃잎이 흩날리는 장면은 보는 이를 황홀경에 빠지게 한다.



Culturespaces Digital • Bunker des Lumières
« Vincent van Gogh » 2019 • Directors: G. Iannuzzi, C. Lombardi, M. Mazzoleni, S. Sosio
track: L'Longobardi • © Gianfranco Iannuzzi



#영화 #고흐 #고갱 영화로 느끼는 고흐

작은 카페에서 미술 작품을 전시 중이던 고흐. 그의 그림을 보고 간 관객은 단 한 명, 고갱뿐이다. 그림을 본 고갱은 고흐에게 "남부로 가라"고 말하고 고흐의 화풍은 확 바뀌게 된다. 영화 <고흐, 영원의 문에서>는 고흐와 고갱의 만남을 시작점으로 고흐의 삶이 어떻게 변모했는지 보여준다. 아를에서부터 오베르 쉬르 우아즈까지 고흐의 여정을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그려낸 수작이다.



#프랑스 #아를 #카페 고흐의 아지트로 향하며

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 실제 배경으로 알려진 르 카페 반 고흐. 생전에 그는 이 노천카페에서 에머랄드빛이 감도는 술 '압생트'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현재는 '카페 반 고흐'라는 이름으로 영업 중인 이 노천카페 앞에는 고흐가 그린 카페 테라스 그림을 인쇄한 안내판이 서 있으며 메뉴판에도 그의 이름이 들어간 요리가 있어 관광객의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 #미디어아트 고흐의 그림 속으로

그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세상을 볼 수 있을까. 상상에서 그칠 것 같은 이 생각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는 현실이 된다. 미디어아트 전시관 '빛의 벙커'에서 열리는 <반 고흐> 전은 그가 남긴 800점 이상의 회화와 1,000여 점의 드로잉 작품으로 구성됐다. 고흐의 강렬한 붓터치가 벙커 벽면과 바닥에 생동감 넘치는 영상미로 펼쳐져 관객의 감탄을 자아낸다.

TASTY ROAD 음식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주말에 뭐 먹지?

푸드 큐레이터 타드 샘플이 전하는 세계 각국의 음식들.
현지의 맛을 그대로 살린 '진짜' 로컬 푸드 식당을 만나보자.

로스트앤파운드

서울시 중구 충무로4길 5, 2층
@lostandfound_euljiro



로스트앤파운드의 이규성 대표는 미국 요리학교 CIA에서 졸업한 뒤 뉴욕 맛집 모모푸쿠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을지로3가에 버번 바를 열었다. 평일엔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곳이지만, 매주 일요일은 예외로 12시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방문하면 미국식 컴포트 푸드 계열의 브런치를 즐길 수 있다. 추천 메뉴는 홈메이드 애플크럼블로 '진짜 미국의 맛'을 느끼게 한다.

파올로데마리아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42
@paolodemariafinetrattoria



부암동을 걷다 보면 이탈리아의 골목길에서 볼 법한 레스토랑을 만나게 된다. 오너셰프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온 파올로 데 마리아로, 그의 레스토랑에서는 정통 이탈리아 음식을 제공한다. 메뉴 구성은 수제 파스타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안 가정식. 놀라울 정도의 디저트로 놓치지 말아야 할 코스다. 훌륭한 음식만큼 서비스 수준도 파인다이닝에 버금갈 정도로 높다.

퀴진 라 끌레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7길 36
@cuisine_la_cle



배진성 오너셰프는 캐나다 퀘벡 레스토랑에서 5년 동안 요리하고 프랑스에서 경력을 이어오다가 한국에 돌아와 서촌에 퀘벡 비스트로 퀴진 라 끌레를 오픈했다. 이곳은 소스부터 베이컨까지 모두 수제로 만들어진다. 점심은 버거 위주, 저녁 메뉴는 와인과 딱 어울리는 북미식 비스트로 요리로 꾸려지고, 하이라이트는 수제 베이컨이다. 한 입 베어 물면 '와우' 소리가 절로 나온다.

글 타드 샘플_잇센틱 공동대표
타드 샘플이 운영하는 잇센틱은 음식에 담긴 맛과 문화, 스토리를 발굴하는 푸드 컨설팅 브랜드이다.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직접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소셜 다이닝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뜨겁고도 시원한 — 한겨울의 질주



총무팀
신직수 대리 × 토건설계팀 **김진욱** 대리

영화 <포드 V 페라리>의 주인공처럼 프랑스 르망 24시간 레이스를 시원하게 내달려보는 꿈. 스피드를 즐기는 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로망이다. '모터스포츠 마니아' 김진욱 대리(토건설계팀)와 '익스트림 마니아' 신직수 대리(총무팀)가 파주의 한 레이싱 카트장에서 그 꿈의 엔진을 달궜다.

설레는 첫 탑승— 오래 합을 맞춰온 친구처럼

"아까 코너 돌면서 한 바퀴 스핀한 것 보셨어요? 차체가 워낙 가벼워서 몸을 조금만 틀어도 카트가 휙휙 움직여요. 일반 자동차였다면 가슴을 쓸어내릴 큰일이지만, 여기에서만큼은 신나고 재밌는 경험이죠(웃음)."

전자장비가 없는 기계식 소형차에 스포츠 레이스를 위한 고출력 엔진을 더해 만든 레이싱 카트. 단순한 구조, 가벼운 차체 그리고 높은 엔진 출력이라는 삼박자를 고루 갖춰 운전자의 작은 움직임마저 놓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반영한다. 덕분에 운전자는 한시도 몸의 긴장을 풀 수 없다. 김진욱 대리와 신직수 대리는 오늘 이 '순수하고 솔직한 매력'에 직접 빠져 보기로 했다.

대학생 때부터 바이크를 즐겨온 '모터스포츠 마니아' 김 대리와, 군 제대 이후 클라이밍, 스노보드, 오프로드 바이크를 거치며 '익스트림 스포츠 마니아'로 거듭난 신 대리 이지만 막상 레이싱 카트는 처음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갈고 닦은 '꾼'의 면모를 살려 몇 마디 툭툭 나누더니, 이내 속도를 낸다. 두 사람이 근처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날카롭고 경쾌한 마찰음이 울린다. 레이싱 카트의 최고 속도는 약 120km. 숫자로 보면 그리 높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앞서 말했듯 가벼운 차체와 높은 엔진 출력으로 특유의 가속도를 자랑한다. 하지만 날쌔고 힘 좋은 모터스포츠의 매력에만 치중된 것은 아니다. 반응이 빠른 만큼 운전자의 핸들링 실력이 여실히 드러나기에 많은 운전 고수들의 도전욕구를 자극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카트 대회가 열리는 이곳 '파주 스피드 파크'의 경우 2인승 카트도 준비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도 무리 없다. 조작법이 간단해 평소 꾸준히 운전을 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시도해볼 만 하다.

몇 바퀴를 가뿐하게 연이어 탄 신직수 대리가 카트에서 내리자마자 환하게 미소 짓는다.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핸들을 돌릴 때마다 기계 구조가 변하는 걸 직접 볼 수 있어요. '와, 벌써 재밌다' 생각하던 찰나에 엔진 소리까지 들리니 확 설레더라고요. '우다다당 우다다당'하는 소리! 문으로 꽉 막힌 자동차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소리예요." 김진욱 대리 역시 옷매무새를 만지며 소감을 보탠다. "카트 차체가 워낙 낮아서 속도감이 제법 나던데요. 슈퍼카가 아니어도 속도를 꽤 즐길 수 있네요."







긴장과 설렘 사이, 몰입과 여유 사이

11사번 동기인 그들은 신입사원교육에서 같은 조로 만나 TF팀에서 첫 프로젝트까지 함께하며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들을 더욱 친밀하게 만든 것은 바로 취미다. 주말이면 바이크에 흠뻑 젖어 방방곡곡을 누비던 신 대리 덕에, 김 대리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등짝 맞을 각오를 하고' 한동안 타지 않던 바이크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됐다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두 사람이지만 매력을 느끼는 지점은 조금 다르다. "그 순간에 100%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아요. 몰입만이 주는 즐거움과 쾌감이 있잖아요. 긴장하느라 몸이 피곤하긴 해도 마음과 정신은 확 개운해져요." 신 대리가 꼽은 익스트림 스포츠의 매력은 단연, 몰입의 즐거움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안전장비로 무장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산속을 누비는 오프로드 바이크에 집중해왔다. 몰입을 통해 특별한 성과도 얻었다. 대한모터사이클협회에 등록해 몇 년째 아마추어 선수로 활동하게 된 것. 2018년에는 랭킹 10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경기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축제를 누리듯 같이 웃고 서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김진욱 대리는 바이크의 매력으로 '여유'를 꼽는다. "차를 타고 가면 '도착지에서부터 시작되는 여행'이 되는 것 같아요. 반면 바이크를 타면 '가는 길이 내내 여행'이 되거든요. 주변이 개방되어 있으니 바람이나 운치 등 여행의 설렘을 더 잘 느낄 수 있고요. 마치 빨리 걸어가듯 자연을 즐기게 돼요.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두고 자신만의 규칙을 정하면 바이크도 그리 위험하지만은 않아요."



추천 카트 체험장
서울 잠실카트체험장 www.birel.kr
파주 스피드파크 www.pspark.co.kr
파주 헤이리카트랜드 kartland.modoo.at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www.koreacircuit.kr

CHECK IT!

레저 카트
카트는 용도에 따라 레저와 레이싱으로 나뉜다. 레저 카트는 체험용이다. 안전수칙만 숙지하면 어린이나 노약자도 즐길 수 있다. 초보자라면, 아이와 함께 즐기고 싶다면, 일단 레저 카트에 도전해보자.

이용금액 1서킷(10분)에 1인 2만원, 2인 2.5만원
복장 긴팔 상하의, 편안한 운동화, 헬멧(대여 가능)
주의사항 최고 시속 60km, 체감 속도는 그 두 배. 느리다고 얕봤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

레이싱 카트
성인만 탑승 가능하다. 속도는 시속 100km 이상까지 나오고, 엔진 반응이 거칠고 빨라 사전 교육과 초기 적응이 꼭 필요하다. 그만큼 그 어떤 차도 넘보지 못할 아드레날린 넘치는 레이싱을 즐길 수 있다.

이용금액 1서킷(10분)에 2-5만원
복장 풀 페이스 헬멧, 수트, 슈즈 등(모두 대여 가능)
주의사항 주행 중 부주의한 가속과 감속은 곧바로 스핀이나 코스 이탈 같은 사고로 연결된다.

새해에는 더욱 '일단 해보는' 마음으로

또 다른 취미도 있다. 둘 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DSLR을 들고 촬영에 나서고는 한다. 최근 김대리는 계절마다 모습을 바꾸는 풍경과 자연 속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그 즐거움에 푹 빠져있다. 반면, 야외활동을 오래 쉬면 잠이 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신 대리는 프리다이빙에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한다. "취미는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일 내내 일에 집중하다 보면 금요일 퇴근길에서까지 업무 고민이 이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업무 리스트를 쓴다든지, 주말에도 업무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요. 하지만 취미 생활을 하면 달라져요. 퇴근 후 하고 싶은 것이 명확해지니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두 사람이 오늘 체험한 레이싱 카트 역시 추천할 만한 취미다. 특히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은 익스트림 스포츠의 경우, 고민을 시작하면 점점 더 행동하기 어려워진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던데 고민의 끝은 보통 'No'인 경우가 많아요. 직장인들에게는 더욱 그렇고요. 파주뿐만 아니라 잠실에도 카트장이 있으니 한 번쯤 들러보면 좋을 거예요. '일단 해보고'라는 마음이면 될 것 같아요."



우건회 제2회 한마음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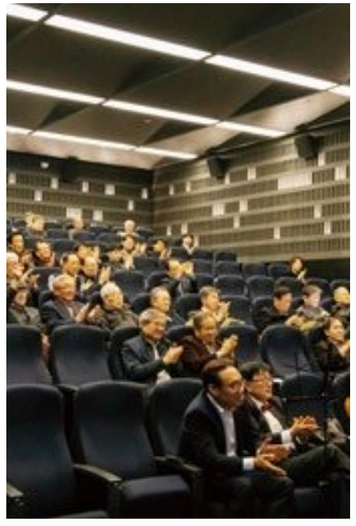
풍류와 예술로 함께 어우러지다

지난 2019년 11월, '동행, 함께 걷다'는 주제로 우건회 한마음축제가 써밋 갤러리에서 열렸다. 2층 갤러리에 회화와 사진, 서예 등 다양한 작품이 벽을 메웠다. 전부 우건회 회원들의 작품이다.
우건회는 대우건설 퇴직 임원들의 모임으로, 2017년 연말 한마음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한 수익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다. 회원들 간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바둑 대국도 열렸다. 이어, 또 다른 화합의 장인 예술제가 김건희 우건회 회장의 소회로 문을 열었다.

"귀중한 회원분들의 배려와
따뜻한 나눔으로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마음축제가 벌써 두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간소하게 시작했지만 귀중한 회원분들의
배려와 따뜻한 나눔으로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인들의 숨은 열정과 끼,
멋을 즐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연흐을 음미해봅시다."
색소폰, 하모니카, 클라리넷 연주와 독창,
국악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오랜 시간 연습과 준비를 해온 것이 분명한
실력이었다. 선곡과 의상에도 각자의 개성이
드러났다. 간혹 일어나는 실수에도 격려의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많은 이들의 격려와
관심 속에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온 두 번째 한마음축제. 함께한다는 것의
큰 의미를 보여준 우건회 회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정대우 종이인형 만들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 **6인 6색 정대우즈와 함께한 한 해**



화서역파크푸르지오 현장 — 남동훈 과장
#내꿈은 #세계정복 #우주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미사역마이움푸르지오시티 현장 — 김민선 사원
#누가누가 #잘따라하나 #뭐야 #과장님
#웃어주기로_했잖아요



프리콘팀 — 차윤호 과장
#우리딸 #정대우말고 #아빠도 #품에
#쑥안아줘

국내마케팅팀 — 원은주 사원
#여기숨어서 #월급루팡_할래요
#그루트_머리위에 #꼭꼭숨어라



신사업개발팀 — 장철원 과장
#트리위에 #정과장님 #놔드려야겠어요
#전망이 #그리좋아



부천원미동지식산업센터 현장 — 이효준 과장
#우리딸_누구닮아서 #이렇게예뻐
#윙크천재 #브이박사 #정대우는거들뿐



기계설계팀 — 김민종 대리
#마법의성건설도 #자신있지
#왕자공주님들 #연락주세요



석유화학사업팀 — 이성일 과장
#오늘파티 #드레스코드는
#엘사하늘색



경산지식산업지구 부지조성공사(2단계) 수주
경산지식산업개발에서 발주한 경산지식산업지구 부지조성공사(2단계)를 수주했다.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와촌면 일대에 984,160㎡ 면적의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착공 후 5년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파주운정신도시3지구 A-8BL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수주
지난 12월 6일, 파주운정3 A-8BL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심의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경기도 파주운정신도시3지구 A-8BL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31,992㎡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8층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다.



대전 태평동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지난 12월 7일, 태평동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104,095.8㎡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8층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다.



창원 가음4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수주
지난 12월 14일, 가음4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86,771.97㎡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3층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다.



방폐장 1단계 동굴 배수 다중화 공사 수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발주한 방폐장 1단계 동굴 배수 다중화 공사를 수주했다.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에 위치한 이번 사업은, 지난 2007년 회사가 수주한 방사선 폐기물 처리시설 1단계 주설비공사의 후속사업으로, 착공일로부터 13개월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수주
양주역세권개발PFV에서 발주한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했다. 경기도 양주시 양주동 및 남방동 일대에 643,840㎡의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착공일로부터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탄2신도시퍼스트타워2 현장 준공
지난 12월 3일, 동탄2신도시퍼스트타워2 현장은 화성시청으로부터 사용검사 승인을 취득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위치한 이 현장은 지하 3층—지상 20층 1개 동 지식산업센터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밀양강푸르지오 현장 준공
지난 12월 24일, 밀양강푸르지오 현장은 밀양시청으로부터 사용검사 승인을 취득했다.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에 위치한 이 현장은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아파트 52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하남시1지구도시개발부지조성 현장 준공
지난 12월 30일, 하남시1지구도시개발부지조성 현장은 하남시청으로부터 준공 및 공사완료공고를 취득했다.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한 이 현장은 155,384㎡ 부지에 주택건설용지와 기반시설용지를 조성했다.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 현장 준공
지난 12월 30일,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 현장은 노원구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취득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이 현장은 지하 3층~지상 28층, 7개동 아파트 8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푸르지오, 조선일보 광고대상 수상
지난 11월 29일, 푸르지오 브랜드 인쇄광고가 '조선일보 광고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금번 광고는 새로운 푸르지오의 브랜드 철학인 '본연이 지닌 고귀함'을 진중하면서도 담백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형 사장은 "새로운 푸르지오를 출시하며 상품과 서비스 전반을 혁신했다"고 밝혔다.



CEO 안전점검 및 고용노동부 차관과 간담회
지난 12월 10일, 김형 사장은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현장에서 CEO 안전점검 및 고용노동부 차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CLEAR 프로그램을 통한 대우건설 고유의 안전문화가 전 직원과 근로자에게 전파되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노이 시장 접견 및 투자협력 MOU 서명식
지난 11월 20일, 김형 사장은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하노이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노이 시장은 THT가 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고, 추가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검토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어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이크 B3CC1/H1HH1 PJ의 투자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말레이시아 총리와 면담
지난 11월 28일, 김형 사장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마하티르 총리는 회사가 말레이시아 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줄 것을 부탁했다.



체코에서 원전건설포럼 개최
지난 11월 26일, 플랜트사업본부 원자력사업실은 체코 프라하 힐튼호텔에서 '2019 한-체 원전건설포럼' 및 '한-체 기업간 B2B 회의'를 개최했다.
체코의 40여 개 기업 약 12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원전산업계의 역량과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체코 신규원전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를 표명했다.



2020년 신입사원 입사식 개최
지난 1월 2일, 신입사원 입사식이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개최되었다. 130명의 신입사원들이 대우건설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자리로, 향후 40여 일간의 교육기간을 통해 회사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 및 실무 업무를 교육받고 현업에 배치된다.

1등
정관장 홍삼정 로얄





배관설계팀 정상기 과장
11월의 반가운 선물, 대우건설 창립 46주년 콘서트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 또한 참석했었는데 너무나 흥겹고 특별했던 무대로 기억됩니다. TV 속 유명인들이 열정을 다해 공연을 진행해 주어 매우 재밌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특히 사회를 맡았던 정상훈 씨의 입담 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혼신의 가창력을 선보였던 홍지민 씨의 노래는 짜릿함을 선사했고요. 무엇보다 같은 팀 동료를 위한 생일축하 무대가 압권이었습니다. 잊지 못한 공연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2등
백화점상품권 5만원권



대신2차푸르지오 현장 이봉석 과장
함께하는 2019 기업문화 캠페인 기사를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올 한해 함께한 기업문화 캠페인을 보며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어요. 포스터 내용처럼 대우건설의 기업문화도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 사무실에 붙어 있는 기업문화 포스터가 오늘은 왠지 더 의미 있어 보입니다.



홍지혜(플랜트구매관리팀 김광오 차장)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칼럼의 편지를 읽으며 해외 현장에서는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올해 해외 발령이 날 것 같은데, 다행히 1월 둘째 아이 돌잔치는 하고 발령이 날 것 같네요. 4살 딸아이는 매일 아빠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데, 미리 염려하지 말아야겠죠? 대우건설 가족분들, 어디에 있든 다들 건강하길 바랍니다.

3등
기프티콘 2만 원 상당

주택건축사업지원2팀 김철형 과장
'취미레슨' 칼럼을 가장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든 영상을 보고 항상 부러워만 했는데 말이죠. 간단하고 쉬운 설명으로 몰입도 Up! 자신감 Up!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콘텐츠에 관심은 있지만 망설이는 대우건설 가족분에게 강력추천 꾸욱^^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공정설계팀 김은지 대리
'직장의 신' 칼럼이 좋았습니다. 복잡한 연말정산 내용을 재미있고 보기 쉽게 알려주셔서 이해가 쏙쏙 잘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도 보기 쉽게 요약되어 있고요. 올해 연말정산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전견적팀 이승희 과장
'티타임 도시여행' 칼럼을 통해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섬으로 떠나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버킷리스트에 넣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로라는 정말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어요.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대우건설인>에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독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한층 성장한
<대우건설인>은 다양한 소식과 정보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알찬 사보를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사보 참여는
우측 QR코드와 담당자 문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박주형 대리
joohyung.park@daewooenc.com
02-2288-1883

응모 방법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좌측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하시면 QR코드에 내장된 다양한 정보가 바로 실행됩니다. 또는 주소창에 모바일 사보 주소(m.dwconstin.com)를 입력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이번 호 선물
1등—1명 애플 에어팟 2세대
2등—2명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3등—3명 기프티콘 2만원 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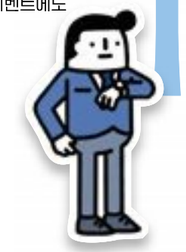
2020년 새롭게 <대우건설인>을 즐기는 **네 가지 방법**





스티커를 이용해
나만의 표지를
<대우건설인> 맨 뒷장을 펼쳐 다양한 정대우 스티커를 만나보세요.
<대우건설인> 표지는 물론, 다이어리와 편지지 위에도 살포시 붙여보면 어떨까요?
누구나 참여 가능한 표지 이벤트에도 많은 응모 바랍니다.

⋙→ 56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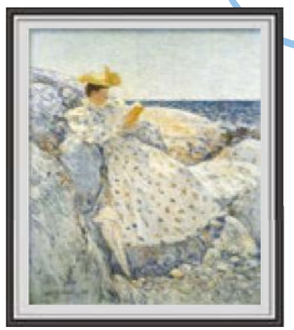
대우건설의 시공물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현장STAR그램 칼럼 속 QR코드를 스캔!
최근 완공된 대우건설의 시공물과 현장 직원들을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 28page



이달의 문화생활 정보,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아쉬울 문화생활 큐레이션도 준비했어요. 주말에 뭐하지 칼럼을 통해 문화정보 확인하시고 더욱 풍성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 40page



올해에는 우리 함께
취미 만들어요
취미유발자들 칼럼이 매 호 다른 취미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다양한 취미의 매력은 물론, 우리 동료들을 더 가깝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 44page